

## 여건 척박해도 강원 군법자들 불심만은 돈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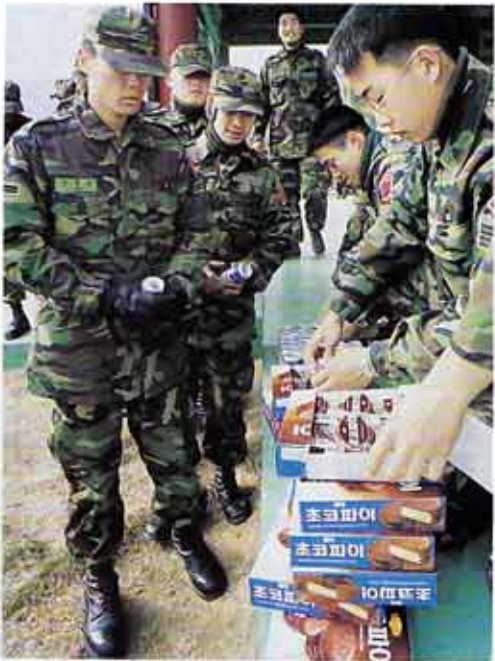
○27사단 군중병들이 호국대성사 설법전에서 정담게 대화를 나누며 설거지를 손질하고 있다.



◇강원도는 20여명의 군법사가 1백여 군법당을 도맡아야 한다. 이기자부대 이태곤 법사도 5개법당을 담당하고 있다. 이태곤 법사의 장병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



○마주보고 있는 교회에는 밴드와 피아노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승리부대 종교센터내 법당은 피아노조차 없어 장병들의 찬불가 소리가 제각각이다.



◇해발 1,200m 고지에 있는 승리부대 병사들은 법당이 없어 병기수리반 아전불상 앞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연대 법당 10일 오전 8시 50분, 강원도 신악에 자리 잡은 군부대에 여는 지역보다 일찍 찾아온 영하의 추위에도 어랑곳하지 않고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병들이 법당으로 모여들었다. 살을 에는 듯한 때서도 비람을 피해 병사들은 손실감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변변한 난방장치가 없는 법당안

### 법당냉기 체온으로 녹이며 마음의 휴식 도내 1백여곳에 군법사는 20여명 불과 재정 큰 어려움...공양물 준비도 버거워

역시 냉기가 가득해 바깥 날씨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 추위가 당연하다는 듯 불자장병들은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 조금만 참으면 동료들의 온기로 후끈해질 것이라.

군중병의 집전으로 시작된 법회, 구석에 놓인 피아노는 자리만 차지할 뿐 활용되지 못했다. 병사들이 부르는 찬불가는 자꾸 음이 틀렸다. 1백여 장병들의 찬불가 부르는 소리마저 작아들었다. 이날 법회는 맥없이 진행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장병들은 추위를 이기느라 군가만들거나 칩찍하게 찬불가를 불렀다. 오늘의 법회는 부모님에게 편지쓰는 날. 비좁은 법당에 다닥다닥 붙어 앉은 장병들은 그리운 이들을 떠올리며 편지를 썼다. 호호 손을 불어가며 행여 부모님이 걱정할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적은 편지가 군중병에게 모아졌다. 장병들은 법문을 해 줄 법사도, 나눠먹을 간식도 없지만 힘들고 지친 일주일의 피로를 이곳 법당에서 풀고,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부대 군중병은 "교회에 가면 외부에서 지원 온 신자들과 즐겁게 찬송가를 부르고 음료수와 피자를 먹을 수 있지만 법당에서는 곰도 푸지 못할 형편"이라며 "간부법자들이 내는 회비로 초코파이 하나 나눠주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소연했다.

철원 ○연대처럼 강원도 군법자들은 외부 민간지원이 거의 없어 상대적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신형연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데 대한 반증이다. 법사 없이 법회를 열어야 하거나 열악한 여건 때문에 불자장병들도 타종교에 배양되고 있는 강원도 현장의 목소리는 불교계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 담겨있다.

전국 군법당은 400여 곳.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백여 법당이 강원도지역에 위치해 있고, 경기도 지역에는 2백여 곳이 있다. 1개 사단에는 부대원칙과 배치가 얼마나 넓게 돼 있는가에 따라 적게는 1곳, 많게는 16개 군법당이 있는 곳도 있다.

강원도에 배치된 군법사는 20여명으로, 전체 군법사 120여명의 6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공 해군 법사 3명이 포함돼 있는 수치다. 강원도지역 육군

법사는 6곳의 군법당과 법회를 관할해야 하지만, 종교행사가 이뤄지는 일요일 하루 동안 법회에 갈 수 있는 곳은 3~4곳. 2~3곳은 법회를 열지 못하거나 군중병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군법사의 임무가 종교행사 뿐만 아니라 교육, 선도, 대민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3~4곳의 군법당을 담당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게다가 군중병은 연대급 이하부대는 다른 보직을 갖고 있는 장병이 군중 업무까지 떠맡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도지역 군법당이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재정적인 것. 장병들에게 법회 때마다 나눠주는 음료수와 간식, 불단에 올리는 공양물 등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부대가 많다. 간부법자들의 회비와 민간인 불자의 보시금, 부처님 오신날 특별성금 등으로 군금이 꾸러가고 있다.

임원 2년차인 읍지부대 구윤호 법사는

지난해 승리부대 예하 연대법사로 근무하면서 부족한 법당운영비를 마련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고스란히 병사들의 간식비로 충당했다. 읍지부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문중의 사형스님이나 도반스님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천도재 율력 아르바이트(가)를 해 본 적도 있다"고 어느 강원도 군법사는 귀띔한다.

50여명의 군법사가 200여 법당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강원도지역과 외견상으로는 군법사 분포가 비슷하다. 그러나 10여 군법교지원단체와 조계종 서울 경기포교사단 군포교팀 110여명이 군법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50여 법당의 재정과 법회를 지원하고 있다. 인근 사찰에서도 일부 법당에 재정 또는 법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비해 강원도지역 군법당의 민간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경기포교사단 군법과 포교사단 강원팀, 동산불교대 동문모임인 정철회에서 5개 법당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군포교지원단체 중에서는 심우회년 3~4회 위문과 불사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강원도 군법교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서울 등 대도시와 거리가 너무 멀 뿐 아니라 강원도지역의 생활수가 워낙 작은 데다가 조직적으로 군포교에 나서는 포교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가 20여명에 불과할 만큼 불교계가 미약한 점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요인이다.

경기도지역에서 활동하다 지난 10월 강원도로 자리를 옮긴 이기자부대 이태곤 군법사는 "지원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미 듣고 있었지만, 직접 와서 보니,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지금처럼 간부법자들에게 군포교비용을 떠맡기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화천군 상서면에 위치한 승리부대 종교센터내 법당은 ○포병대대와 신병교육대대 장병들의 종교활동 공간으로, 매주 일요일 법회를 열고 있다. 1층짜리 현관을 사이에 두고 교회와 마주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당에 다니는 불자장병들은 매주 민간교회에서 군교회에 위문을 오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밴드와 피아노를 갖추고 있는 교회와 피아노 한 대 없는 법당, 빈주에 맞춰 찬불가를 불러 보는 게 이곳 군법자들의 소원이다. 이곳에서 만난 불자장병은 "현관을 비교가 되어야 비교를 하지, 이런 비교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푸념했다.

승리부대 유평은 법사는 "1명의 군법사가 10곳이 넘는 법당을 관리하는 부대의 불자장병들은 법문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토로했다. 또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군법자들은 최소한의 신형연군이라도 갖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박봉영 기자 bbsradio@buddho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ns001@buddhopia.com

1군사령부 법당	033)742-2701	15사단 찬불사	033)441-6843
2군단 병영사	033)242-6166	21사단 도봉사	033)481-4304
3군단 불일사	033)461-5108	22사단 문학사	033)631-9600
8군단 총홍사	033)671-2195	23사단 용해사	033)823-6153
2사단 의선사	033)481-3694	27사단 대성사	033)441-4218
3사단 심불사	033)458-3414	36사단 벽초정사	033)743-6264
6사단 원현사	033)455-3103	102사단 동해사	033)671-2195
7사단 백암사	033)442-3287	8전투비행단 마타사	033)747-4435
11사단 화평사	033)433-7723	18전투비행단 한송사	033)645-9009
12사단 들지사	033)462-1417	1합대사령부 제동사	033)533-0655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도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일으켜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상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꺼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로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